

한국노인의 회상(回想)의 본질에 관한 연구*

이 은 정**

I. 서 론

인간은 수태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출생, 성장, 죽음에 이르기까지 노화 과정의 선상에 있다(전산초, 최영희, 199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화는 생로병사의 끊임없는 반복이 있어온 인간의 역사 이래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서병숙, 1991). 이처럼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및 노화에 대한 관점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신념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아 다분히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노인의 '회상(remiscence)' 역시 노인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무관하지 않게 이해되어왔다. 고대의 철학자인 Aristotle(1941)은 『수사학』에서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여 산다. 그들의 삶에 있어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먼 과거와는 거의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그들은 기억하기를 즐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과거를 되씹는다."라고 묘사한다. 또한 Lidz(1968)는 "노인은 삶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즐거움을 구걸받기 위해 많은 시간은 과거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허비한다."라고 노인의 회상을 혹독하게 평가절하시키고 있다. 이들의 표현에서 우리는 회상이 고대로부터 현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힘을 상실한 노인들이 과거로 도피함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삼기 위한 전유물처럼 여겨져왔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회상이 독립된 개념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진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에게 있어 회상의 실무적 유용성을 입증하려는 시도에서부터 비롯된다(정영, 1994; 전시자, 1989; 하양숙, 1990; Fry, 1991; Poon, 1992; Romaniuk, 1981; Sherman, 1991). 이들 연구는 주로 실험 연구로서 회상이 노인 간호를 위한 적절한 중재임을 입증하기에는 초보적 단계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회상을 노인 간호를 위한 중재개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고려된 회상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방법은 연구자가 대상자의 생활세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생생한 삶의 경험을 기술할 수 있다(최영희, 1994; Munhall, 1986). 이 방법은 대상자의 관점에서 서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노인이 일상 생활에서 회상하는 양상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고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석학적 현상학은 인간의 경험이나 삶은 항상 맥락의 존적이고, 해석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경험을 연구할 때 맥락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경험을 포착한다(Benner, 1985; Van Manen, 1990). 노인의 회상은 노인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의 배경이 되는 맥락인 일상 생활과 연관지어 볼 때 그 생생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석학적 현상학 관점에서 출발하여, 한국 노인의 회상의 본질을 밝히고 그 본질의 해석학적 의

* 본 논문은 1996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임.

**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

미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회상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노인 회상을 주제로 한 연구는 먼저 회상과 제반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거나 회상을 중재요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가져오는 효과를 증명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Poon(1992)은 노인의 생의 회상과 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와는 의미있는 관계가 없다고 보았으며, Fry(1991)는 Nursing homes에 거주하는 노인 140명에게 9개의 척도와 Havighurst와 Glasser(1972)가 고안한 회상에 대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회상 빈도와 즐거움을 예측하는 인자를 밝히는 연구를 하였다. Hyland와 AcKerman(1988)은 과거에 대한 연령별 기억의 차이와 현재의 행복감 수준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노인일수록 회상을 자주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현실에 대한 불만족감이 왜 노인으로 하여금 과거를 자주 생각하도록 촉진하는지와 그 행동의 숨겨진 의미는 질문지에 의한 1회적인 조사방법으로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 Youssef(1990), Lappe(1987)의 연구에서 회상은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Stevens-Ratchford(1992), 정영(1994)의 연구에서는 우울감과 자존감의 변화정도를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상이 노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 결정적인 변수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Beaton(1991), Tafe와 Nehrke(1990)는 회상의 노인의 자아통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반면, 이외에 이루어진 회상 중재에 관한 실험적 연구들(Carlson, 1984; David, 1990; Hale & Hedgepeth, 1983)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집단 회상 연구들은 5-6회의 모임을 가졌다 하더라도 1회의 회상에 소요된 시간이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여서 실제 각 대상자별 소요된 총시간은 15분에서 35분 정도이며, 개인 회상의 경우도 대상자와의 면접 횟수가 1-2회에 그치고 있다. 노인 회상에 관한 질적 연구는 노인이 회상한 내용을 분석하거나(Burnside, 1993; Kobach, 1993) 노인 회상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기술한 사례 중심의 연구(McKeniz, 1991; Nugent, 1995) 등 소수에 불과하다.

회상은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각각의 부분

들은 확인되고 명명되며 기술되어야 한다(Haight, 1991). Webster(1993)는 지금까지의 회상 개념이 연대기적으로 그리고 정제된 개인적 경험이 단순한 양식으로 표상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고 지적하고, 회상은 그보다는 훨씬 복잡한 개인과 맥락적 변수간의 일생동안의 지속적인 교환과 재고의 과정이라고 하여 회상 개념의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Wallace(1992)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있는 노인, 문화 및 하부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노인의 회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간의 경험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존한다. 즉 개별 노인의 삶의 배경은 각각 다르며 회상에 대한 의미 또한 다양하다. 그러므로 개별 노인의 과거의 삶의 배경과 전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하려는 현상의 본질에 가능한 접근하기 위해 연구자의 경험, 어원, 관용어구, 문학 예술작품 등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현상의 의미를 포착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이며,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한 해석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해석학이다. 노인 회상의 개별성과 보편성이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 노인, 양로원 노인, 그리고 병원 노인 등 다양한 층의 노인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1996년 1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이루어졌다. 주제 분석은 먼저 텍스트에 민감해지려고 여러 차례 자료를 읽으면서, 회상과 관련된 문장이나 장면들을 전체 자료에서 찾아내었다. 그 다음에 노인의 회상을 의미하는 주제 진술의 분리작업을 하였으며,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 이 진술들을 가능한 모두 포괄하는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말로 바꾸었다. 주제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회상의 주제 의미와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고 현상학적 기술을 할 때 1930년대 이후의 근대 한국 소설, 속담, 어원 등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획득한 노인의 회상에 관한 자료들을 반영하였다.

IV. 노인 회상의 본질적 주제 및 현상학적 기술

자료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본질적인 주제는 「삶의 회한」, 「한의 식임」, 「힘의 추구」, 그리고 「삶의 보람」이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표현한 텍스트적

반영을 통해서 발견된 4가지 본질적 주제를 중심으로 해석학적 의미를 기술하겠다.

“산 것도 안 같고 죽은 것도 안 같고 심안허지. 살고 나왔어도 심안허 산 것이. ‘어찌고 살았는고’허고 심안해. 어떤 때는 잠을 안자고 조계 초저녁에 어찌고 어찌고 허면 그냥, 한 가닥을 추켜들면 이 가닥도 나오고, 요 가닥도 나오고. 앓것도, 아침에 보면 앓것도 없어. 근디 저녁 내 재판을 허니니고 잠을 못 자. 인자 한 구벽(구멍)만 뚫어 놓면, 번구벽 만이로 여그서 저그서 ... 아무 편유가 없어. 내 땅 갖고 내 농사짓고 살을 때는 기가 펴끔하게 살었지. 내 몸 늙어지고, 내 혈육이 떨어져버리고, 그 적에 모은 재산은 다 온데간데 없어져버리고, 앓것도 없어... 사람 사는 것이 한 일평생 사는 것이 가깝히 생각해 보면, 공부들 많이 허고 책을 한 권이 나사서 장, 오늬는 빛을 허고 룡해는 빛을 허고, 낱알이 는 못헝양정, 좋은디, 그걸 안허라서 이렇게 고생을 허서 없어. 녹음을 허놓든지, 어쩐다는 것이 있을 판인디 없어. 살면 사는 거여. 허멍혀. 엇그저게 같여. 엇그저게 같구멍(양호원 노인, 여자, 78세)”

우리 인간의 삶의 발자취를 도화지에 그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그것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하여 각양각색으로 그려질 것이다. 더욱이 오랜 세월과 함께 해온 노인이라면 그의 삶이 지나간 세월의 영김만큼이나 복잡하게 여겨질 것이다. 노인의 회상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노인의 말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단지 자기 인생이 한심하고 허망하다고 푸념만 하는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노인의 삶의 경험이 다양하고 현재의 위치 또한 다양해서 한국 노인의 회상의 본질을 한마디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노인의 말을 빌어본다면, 굵이굵이 살아온 ‘삶의 자락을 펼치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이 짧은 말 속에서 우리는 한 노인의 전생애를 보는 듯하다. 한 노인의 일생(一生)이지만 그것은 하나가 아니다. 오히려 ‘이 가닥, 요 가닥’ 마치 벌집의 구멍에서 실가락이 나오듯 삶의 자락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아 노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그래서 노인인 ‘산 것도 죽은 것도 안 같다’고 말한다. 노인은 ‘내 땅 갖고 내 농사 지으며 기가 펴끔하게 산 적’도 있다. ‘혈육을 거느리고’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며 살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는 힘을 발휘하고 살았던 자락을 음미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이제는 내 몸이 늙어지고 내 혈육이 떨어져버리고, 그전에 모은 재산도 온데간데 없어져버리고 자기 삶을 증명할 만한 존재가 없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딘가에 잘 적어놓기라도 했으면 무언가 잡힐 것이 있는 것처럼 아쉬움을 가져보지만, 허망함만 남는다고 탄식한다. 때로는 삶의 발자취를 찾고자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그동안 제대로 살긴 살았는지 ‘재판’을 하기도 한다. 아침이면 아무 쓸데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밤새 ‘삶의 가닥을 추리느라’ 잠을 못이룬다.

인간은 살아가며 끊임없이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하며 이루지 못한 것이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억울한 마음과 원통한 마음 등을 갖는다. 이러한 일련의 양상은 회한이라고 표현 수 있다. 그래서 윤정선의 「해결 녘」에서 노인은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책과 부끄러움, 즉, 회한”이라고 말하고 있다. 삶의 회한은 노인이 지나온 삶의 여러 자락 중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통회와 후회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고생과 희생으로 일관된 삶에 대한 억울함과 서러움,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하지 못한 도리에 대한 회한, 그리고 물질 대한 회한 그리고 배움에 대한 회한을 한다. 노인은 희생과 고생으로 점철된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늙고 병든 몸뿐이라는 사실이 서럽기만 하다고 표현한다. 폐암 환자인 아래의 노인은 일제지배하의 전쟁터에서의 치열했던 전투와 포로 생활을 주로 회상한다. 젊어서는 그럭저럭 힘이 있으니까 넘겼다가 이제 늙고 힘이 없으니까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나고 슬픈 마음이 든다고 표현한다. 바보처럼 희생한 삶에 대한 회한이다.

“내가 내 병을 알아요. 왜정 때 일본 놈 군대가서 일을 했거든. 내가 거그서 내가 제일 무리를 했어. 자기 삶은 것을 억지로 가가지고, 소련 놈들한테 끌려가가지고 4년 2개월 동안 석탄을 팠어...(중략). 요새 내 맘이 이렇게 자꾸 그때 그일이 생각나. 그때 석탄굴에서 일허고 그런 것이 다 생각나고 비감이 다 나. 슬픈 맘이 난달 막여. 이렇게 된 게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맨 헛 푼맛 팠고 젊어서는 동아댕기다가, 참! 허기 싫은 일도 많이 허고,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병원 노인, 남자, 73세)

이처럼 고생과 희생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회한은 노인이 노화와 죽음이라는 실존의 문제에 직면할 때 갖는 현상으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과도기로서 노인 회상의 중요한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하지 못한 도리에 대한 회한을 한다. 아래의 노인에게는 중년에 부인과 별거한 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를 찾아와 학원비를 대달라고 요구했을 때 들어주지 못하고 어린 아들의 눈에서 눈물을 빼게 한 일은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을 만큼 한이 맺혀있다. 또한 “해 놓은 표적이 없다”는 말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년에 가정이라는 인생의 무대를 가지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회혼(回婚)이란 60년을 해로한 부부가 자손들 앞에서 다시 혼례를 치르는 우리나라의 전통 예식이다. 이 노인의 말처럼 부부해로, 아들, 딸, 손자손녀 등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못하는 집안의 경사중의 경사로 친다. 이러한 문화적 관습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가족에게 가장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 지난 30년의 세월이 이 노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아있을 것인가는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아들이 나 있는 데를 알아갔고 어떻게 거그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가 명년에 고등학교를 입학하니깐, 학원비 15원 내지 20원만 대주면, 고등학교에 들어갈 자금이 있다”고. 내가 그때 송아지라도 팔아서 대주었어야 하는데... 그러고 그 애가 나 안보는디 눈물바람을 하고 갠 모양이요. 갠 적에...(말을 잊지 못하고 침을 삼킨다. 눈가가 빨갱게 젖어 있다). (연구자: 그때 그 일이 가슴에 맺히시니까요?) 아! 맺히죠. 맺히고 맺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아주, 응어리가... 내가 낡과 같이 가정 생활을 잔정있게 이쪽어나가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공부하는데 헛바라지라도 허척으면, 지금이라도 내가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데...(중략)... 지금은 후회되는 것, 후회뿐이지. 전부가 다, 순전히 다. 해놓은 것이 없으게. 이게 지금 표적이 없다 그 말이. 지금 자꾸 후회된다고 하는 것이 왜냐면, 전 반적으로 훑어볼 때 후회스러운 것밖에 안 낡어, 지금 낡은 것이. 내 똥해 혼이거든. 혼잔치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딸도, 아들도 따누나도 다 갖춰져야 할 수 있어. 아무리 부자라도 안 갖춰지면 허고 싶어도 못혀. 그게 원이여. 나는 그 중 빠진 것이 없어. 다 있어. 근데 못 허잖어. 얼마나 후회스럽냐 이 말이. 그간 병거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 걱정이 크게 후회돼. 많이 원망스럽고 후회스럽고.(양호원 노인, 남자, 80세)

오영수의 「오지에서 온 편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노인의 심정이 편지 형식을 통해 묘사된다. 노

인은 1970년을 생애를 통해 잊을 수 없다고 회상한다. 자식에게 갖는 의무와 기대는 자식을 둔 아버지의 삶의 의미이자 희망이기 때문에 자식의 죽음과 함께 이제 모든 희망이 끝나버렸다고 절망한다. 이동하의 「땀」에서 해방 직후 네 살박이 어린 것과 부모 형제를 두고 홀홀단신으로 남향한 노인은 혈육을 두고 떠난 것을 원통해하며 생을 마감한다. 김정환의 「어떤 유서」에서는 <송노인>이 자기와 젊은 시절을 이 세상의 고생과 멸시 속에서 견디다 먼저 간 배우자를 회상한다. 아내에게 단 한 번도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자신을 한탄하며 죽은 할멈에 대한 그리움과 부끄러움으로 괴로워한다. 김동인의 「배따라기」에서 <늙은 뱃사공>에게는 젊은 시절에 아내와 동생과의 관계를 오해하여 결국 아내를 바다에 투신하게 만든 과오가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그래서 뱃사공은 평생을 회한이 담긴 배따라기를 부르며 바다를 가른다. 왜냐하면 바다 속에는 “삭이지 못할 뉘우침”, 곧 회한과 아내에 대한 애처로운 그리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물질에 대한 회한이다. 노인은 이루지 못한 물질에 대해 아쉬워하기도 하며 남들처럼 세상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살아오지 못한 자신의 삶이 어리석었음을 억울해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형편없다고 여겼던 곳에 고충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볼 때 죽음으로 향하는 세월의 유한성을 절감하게 되고 자기의 무력함과 억울한 마음은 더해만 간다.

“...돈이 너무 많아서 큰 가방 속에 싸놓고 싶(세) 쪽도 몰나. 그 많은 돈 다 어쩔는지 몰나. 우리 따누나가 야짜(돈이 산처럼 쌓였다는 것)가 자꾸 준다고 그러...(중략)... 그때 땅이라도 사났더라면 저 큰 뽕덩을 사고도 낡지. 인생 헛살았어...(중략). 땅사거나 이런 것은 생각 못했지. 세상이 이렇게 돼 죽만 알았습사. 그것 하나가 제로 억울허고. 지금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이 사람이라는 것이 영리허고도 미천한 것이 인간이 낡 말여. 하이! 지금 생각허면 억울허. 지금 돌아뵈긴서 보면 옛날 형편 없는 자리에 뽕덩이 들어서는 것 보면, 우리 큰 아버지께서, 우리 백부님이 ‘땅을 사 놓으면 구신도 못 떠어간다’ 아 그 말이 인제서 생각이 낡달 말여.”(재가 노인, 남자, 86세)

이태준의 「복덕방」에서 <안초사>는 자식으로부터 받는 멸시와 돈의 궁핍함으로 날로 초라해져가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출세

도 하지 못했던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안초시>에
 계는 늙어가는 것이 원통하기만 하다. 실험심리 연구가
 들은 억울함, 후회스러움, 아쉬움, 죄의식 등 회상에 따
 른 정서적 반응을 우울감의 증가, 자기 가치감 저하, 과
 거에 대한 평가절하, 죽음불안 증가 등의 개념으로 객관
 화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였다(Beaton, 1991 ; Cal-
 son, 1984 ; Romaniuk, 1981). 그러나 실존주의적 관점
 은 해석의 각도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불
 안이나 죄의식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의 존재자로
 서 경험하는 데 출발점이자 근거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인간 실존 그 자체이며 존재의 위협과 동
 시에 존재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경험
 하는 현상으로 본다(정성호 역, Rollo May, 1986).

노인은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부분들에 대해 회한을
 하지만, 후회와 원망의 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는
 다. 오히려 집착을 포기하고 인연의 굴레를 떨쳐버리고
 한(恨)을 삭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그 나름으로 수용하고 관조하는 태도를 가진다.
 집착의 포기가 잘 드러나는 부분은 물질의 포기이다. 노
 인은 물질의 복은 타고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며 ‘팔자 탓’, ‘운’으로 돌리며 포기한다. 자식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바, 물질에 대한 집
 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모습을 느낄 수 있다.

“...허허...아까 말한 대로 나는, 돈을 돈 같이 알았
 으면, 참 내가 ‘다지군 팔자디, 팔자로구나’ 허는 생각
 을 먹다, 내가 돈을 돈으로 알았으면 부자가 됐을텐디,
 돈을 돈으로 알지 않아서 내 성직이. 아! 이게 팔자속
 인가 보구나 허는 생각이 들어...(중략)...지군 애들이
 커서 허는 딸이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가 어려서 그걸
 게 돈을 갖다가 써도 못났냐고, 그러고 얘기 험선 웃고
 그러지. 허허...”(재가 노인, 남자, 86세)

노인은 또한 인연의 굴레를 떨쳐버림으로써 한을 삭
 인다. 아래의 노인은 친정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살아온
 삶이 서러워 지금도 어머니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짙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인이 되면서 청상의 몸으로 어린 자
 식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마
 음을 이해함으로써 잊었던 감정의 매듭을 푼다.

“...(중략)...아이고! 지금 내가 우리 어머니보고 야
 속케했다고 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인곱을 혼자 대고
 고 살면서 어찌했어. 그렇게 독살스럽게 안 했으면 살

었겠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그 늙 다 여워서 잘사
 네 못 사네 허도 다 살게끔 허줬지. 인자 나이가 먹음
 게 웬 어머니 신경이 이해가 가. 시방 내가 살건허고
 복잡허은,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
 이 들어가.”(재가 노인, 여자, 65세)

다음의 양로원 노인도 6.25 전쟁 때 피난 길에서 남편
 과 한 살박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젊은 시절을 자식을 오
 매불망 그리며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인덕(人
 德)이 없고 타고난 팔자로 욕망을 ‘돌려버리고 인정을
 허버림’으로써 혈육에 대한 욕망을 가슴으로 삭인다.

“하이고! 내가 인덕이 없으게. 인자는 내가 타고난
 팔자로 돌려버리고 인정을 허버려서 어머 원망도 없
 고 후회도 안 허 나. 아무 인연이 없이 나는 전생에서
 태어날 사냥이여. 인연이 없어. 그렇게 인자 모든 것이
 자포자기허버리고...(중략)... 내가 팔단을 잘했지. 늙
 고 병맛 축 쳐지고, 그 천대를 어디가서 받아? 어떤 조
 카 며느리가 그천을 허. 다 소용등 없지. 아, 그러서 요
 새는 가말히 와서 생각을 허봉게 ‘나 같이 어리석은
 사냥이 없다’ ...내가 조카 새끼 키워갖고 내가 살라고
 계획을 세운 것이 그게 어리석지. 근디 인제 내가 반성
 을 했지. 빨리 내가 반성을 허고 빨리 깨쳐요. 노상 그
 건 것만 머리를 쓰는 통에 빨리 깨쳐지.”(양노원 노인,
 여자, 67세)

이동하의 「땀」에서 아침마다 오르는 약속회에 모여있
 은 노인들의 단골 메뉴는 6.25 전쟁 당시의 고통, 가족과
 의 생이별, 하루 아침에 거덜이 난 이야기들이다. 그때
 한 차례씩 멍든 인생들이지만, 그간의 엄청난 변화와 더
 불어 어쨌든 이제는 옛말하며 그럭저럭 살 만하다는 여
 유와 적지 않은 감상적인 만족감을 맛보게 하는 듯하다.
 크든 작든 너나 없이 입은 상처를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
 는 것은 노인들로 하여금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온 동지
 적 유대감과 가슴에 맺힌 한을 어루만져주는 의지가 되
 는 것으로 보인다. 김원일의 「미망」은 육십 노인인 <며
 느리>와 구십 노구인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묘사한 소
 설이다. <며느리>는 자식들에게 왜 자기가 시어머니에
 게 모질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해명하면서, 시어머니에
 게 받은 괘시와 그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바보처럼 살아
 온 어리석은 삶을 억울해한다. 그러나 이 소설의 마지막
 은 ‘할머니가 생전에 그러도 좋아하던 ‘강갈치’ 한 묶음
 이 어머니의 손에 들려 있었다’라고 끝을 맺는다. 생전

의 인연의 갈등을 풀고 굴레를 떨쳐버리는 것이라 보여진다. 문순태의 「황홀한 귀향」에서 〈최두삼 노인〉은 6.25 전쟁 당시 고향인 학골 사람들을 무참히 살생했던 것을 수 없는 과오로 괴로워한다. 그러나 결국 그는 마을 사람들과 엮혔던 30년간의 오래된 인연의 굴레를 떨쳐버리고 한을 적극적으로 삭인다. 천이두(1993)에 의하면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로서 한은 '삭임'의 기능을 갖는다. 이 한의 삭임의 기능에 의하여 원한과 한탄 등 한의 독소가 해독되고 미학적·윤리적 가치로 승화·발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을 삭이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으로 성숙될 수 있는 것이다.

삶의 회한과 한의 삭임의 역동적 과정을 거치면서 한편으로 노인은 회상을 통해서 지난 날의 힘을 확인(確認)한다. 젊었던 시절의 기력, 패기와 충기, 그리고 기세를 확인함으로써 즐거워하고 자기를 가치있는 존재로 여긴다. 다음 재가 노인의 진술에서 기력의 확인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패기와 기세의 확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오래 살아. 허허... 어째서 이렇게 안 죽고 오래 사는지. 내가 생각해. 그때 우리 큰아들 아파트 1층에 살았는데, 내 나이 환강이 넘었나 그렇거여...(중략)... 아, 다짜고짜 와서 내 목을 졸라. ‘아 요것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숨을 못 쉬겠어. ‘애나 모르겠다 당수 한번 쳐본다’고. 아 누워서 한번 갈겨버렸더니, 락! 한번, 거 누워서 당수 했으니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 아 나이 먹은 늙이 젊어서는 쇠망치 같지만, 어떻게 세계 때릴 수가 있었겠어? 그대도 하도 내가 젊어서 그런 장난을 하고...(중략)... 하여간 뺨만 먹으면 그것을 하곤 했으니까. 하하. 한대 락! 하고 갈겼더니 땀! 하고 땀어져. 아, 이복서 사람 하나 죽어버린다고 허기래(일제 시대에 살았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한다), “그 늙을 대려오니까” 그래서 데리고 오면, 참 퍼뜨려하니 내 보기에 참 거지 같은 새끼라고나 할까. 내가 따러 한대 딱 갈기고, “정신 나 이 자식아?. 어디서 숨 먹었어. 이 새끼! 입으로 먹었지?” (웃음) 이렇게 혼내고 잘 타익리고, 다 내 사람 맞들고 했는디. 내가 그런 사람인디. 아! 내가 그런 사람인디, 사람을 번히(랜히) 잘 못 때려서 죽었는가 해서...(중략)... 약약에 차격 기운이 올라올양이면 길가다가도 차격기운이 올라오는 걸 느껴...(중략). 이것이 쉬!(주먹질을 해 보인디) 하면 쇠망치가 같은가바. 낱가들도 억 해냈는데 비튼비튼 넘어질라고 혀. 이 늙

의 주먹이 그런 늙의 주먹이건 말여. 이 늙의 주먹이!(주먹으로 뺨바닥을 쿡쿡 찌으며 증거운 듯이 웃는다).”(재가 노인, 남자, 86세)

“일제 때 군인 1기 생이라, 징병 1기여. 갓자생인디, 군인 1기 생이라. 해군으로 가서, 진해가서 8월 14일 날 일본으로 갈라고, 부산 부두에다 징병해서 있는디, 6.25 때 그때 내가 전도사였지. 장혀가서 고상 지직히도 했지.(6.25 때 고문 당하던 일, 바른 소리를 해서 더욱 두들겨맞았다는 이야기를 즐겁게 이야기한다. 고문 당하는 과정을 말할 때는 표정이 일그러져 있고 눈을 읊조린다)...나는 잘못한 것 없소 말여. 고아원, 양노원 찾아댕기서 문맹퇴치하고 가난극복한 것도 저가 됩니까 말여. 하!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듯 하! 하고 감탄사를 연발한다)...(중략)... ‘문지마나 갓자생’ 말도 있잖여? 갓자생하면 곡적이 많지. 일제 때 태어나서 일제 때 고생하고, 6.25 때 당해서 난리를 몇번을 치르고.”(병원 노인, 남자, 73세)

위 80세 남자노인은 일제 시대인 20대 초반과 환갑을 갓 넘긴 60대 초반에 다른 사람과 싸웠던 일을 회상하며 쇠망치가 같은 주먹의 힘이 비록 나이를 먹었지만 아직도 견제하다는 사실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한다. 특히, ‘누워서 당수했으니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 ‘아, 나이 먹은 늙이 젊어서는 쇠망치 같지만 어떻게 세계 때릴 수가 있었겠어?’라고 하는 표현은 늙었지만 힘이 견제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자 연구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어적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참, 쪼꼬만하니 내 보기에 참 거지 같은 새끼라고나 할까?’라고 일본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표시하는 것은 남아로서의 혈기왕성한 패기를 빌어 사회·정치적인 힘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시대의 노인들은 젊은이로서 가장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을 일제의 억압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일본인, 일제에 대한 사회 정치적인 열등의식을 남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노인이 쇠망치 같은 주먹, 몸의 기운 등을 내세워 기력을 추구하는 것은 그 당시 적대관계에 있는 일본인마저도 ‘내 사람’으로 만들 만큼 자기가 기세등등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사회 정치적인 열등의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늙의 주먹이 그런 늙의 주먹이란 말여’ ‘내 사람 만들고 했다’, ‘내가 그런 사람인디’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젊었을 때의 기력이 늙어서도 유지됨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받았던 존재라는 것에 자부심이

크다. 특히 남자 노인들은 일제시대나 6.25 전쟁에서 겪었던 고생이나 죽을 뻔한 경험을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이 모험담을 이야기하듯이 과장되게 표현한다. 이는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생이나 역경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정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대부분 여과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그 보다는 늙어 육신의 힘이 사위어가는 것을 절감하면서 젊은 시절의 충만했던 기력과 패기를 더욱 갈망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치열했던 전쟁 말기에 “그때는 젊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모험심에 불탔다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는 몸의 힘, 곧 기력을 기반으로 마음의 힘인 패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로서 힘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을 집중적으로 회상하는 것 같다. 고통스러운 경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어려움 중에도 불의를 용서치 않았던 의협심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 하다. 일제시대나 6.25 전쟁 당시의 고생을 극복한 것에 대한 회상은 곧 훈장과 같은 역할을 하며 노인의 힘을 북돋아주는 것 같다.

또한 노인은 지난 날을 살아오는 동안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거느렸으며, 돈, 전답 따위의 물질을 마음 먹은 대로 모을 수 있었고, 또한 이웃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아오는 등 사회적 힘인 기세를 확인한다. 아래 진술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이루어 놓은 전답’이라는 표현은 몸의 힘인 기력을 기반으로 전답, 곧 물질의 힘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경 사회의 노인에게 있어 전답은 곧, 사회적 힘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순전히 내 머리박, 내 노력으로 벌었다’라는 표현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나 배운 지식이 없지만 젊음의 패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질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생긴 모양은 늙어서 볼 품이 없지만, ‘젊어서는 치사스럽게(치하받다라는 뜻의 부사적 표현) 존경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노인이 사회적 능력인 기세를 발휘했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보인다.

“...순전히 내 머리박으로만 버티고 살아왔지. 배운 것도 없고 순전히 내 노력으로 벌었지. 그렇게 동네 사냥들이 그려. 갓오갓자 뽕뽕자거든 내 이늬이. 갓뽕이 손에맛 들어간 전답은 나뽕 죽 모은다 이거여(즐거워 표정을 지으며 웃는다). 눈을 하나 딱 사면 요것을 두고 인자 요늬 살라고 또 밭악을 쳐. 나는 또 밭도 밍이 없어. 밭묵고 그저 돌면 되는 거지...(중략)...인자 늬

응게 가치가 없어지지. 젊어서는 치사스럽게 존경도 받고. 찰 구경도 허고, 머귀에 가서 하! 여행도 허고. 내가 지금 생긴 모양살이 보고 어느 자리 가서도 이야기하면 다 늬래야. ‘저런 사얌이 저렇게 헛응까’ 이렇게 생각헌다고.”(재가 노인, 남자, 73세)

최인호의 「영감(靈感)」은 죽은 남편의 무덤 앞에서 회상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손자의 동심어린 눈을 통해서 환상적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노인의 회상의 의미인 힘의 확인이 발견된다. 회상 속에서 지난 날의 힘을 확인하는 동안 만큼은 할머니는 더 이상 구십노인이 아니다. 오히려 노인의 몸과 마음은 피어오르는 생기로 가득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할머니〉의 그 회상의 의미가 젊은 시절의 기력과 혈기로 가득한 패기를 확인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다. 최일남의 「흐르는 북」에서 〈민익태 노인〉은 젊은 시절을 넘쳐나는 ‘끼’를 주체할 수 없어 가정을 돌보기를 소홀히 하고 떠돌아다닌다. 말년에 자식에게 돌아와 얹혀살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에 대한 죄의식에 위축되어 살아가는 힘없는 노인이다. 그러나 일단 북채만 잡으면 ‘끼’와 더불어 젊은 시절의 혈기왕성했던 기억과 함께 힘이 솟구치는 자신을 느낀다. 특히 본문 중 “참으로 오랜 만에 북을 거어 보는 맛에 없던 힘이 새록새록 솟아나, 어제의 자기를 내뽕개치는 기분으로 빠져들어갔다”라고 묘사된 부분은 자기의 한평생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북치는 일이 노인으로 하여금 힘을 솟구치게 하고 신명나게 하는 일임을 느끼게 한다. “겉은 늙어도 속은 안 늙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의 뜻은 노인이 육신은 노쇠하여 기력이 쇠해졌지만 젊은 시절에 가졌던 자신감, 패기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옛 시어미 범 안 잡았다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은 노인이 과거를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힘과 용기가 있었음을 자랑하고 싶어한다는 뜻으로 힘의 확인을 뒷받침하여준다.

힘이란 신체적 활동력을 의미할 뿐 아니라, 자신감, 지적 능력 등을 나타내는 심리적인 힘,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인 힘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김경은, 1995). 따라서 힘은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 인간이 힘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 본성상 끊임없이 스스로를 초월하여 의지 그 자체를 무한한 목적으로서 요구하는 힘의 확장과 분출로서의 의지이며, 따라서 인간의 삶은 이러한 힘에의 의지를 본질로 한다고 볼 수 있

다. 힘에의 의지는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개인의 자기실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성이나 경쟁적 노력으로서가 아닌 존재론적 범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임두빈, 1982). 따라서 회상을 통한 힘의 확인은 끊임없이 힘을 확장·분출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노인 특유의 삶의 방식인 것이다.

노인 회상의 마지막 본질적 주제는 삶의 보람이다. 즉, 가족의 일원으로서 도리를 다함에 대한 보람과 이웃의 일원으로서 도리를 다함에 대한 보람이다. 먼저 가족의 일원으로서 도리를 다함에 대한 삶의 보람이란, 부모, 자식, 남편, 그리고 아내 등 주어진 역할을 마땅히 이행한 것에 따른 만족감이다. 아래 양로원 노인의 경우, 젊은 시절에 어려운 살림살이였지만 부모님의 병수발을 도맡아하고 부모 돌아가신 후에도 최선을 다 해서 조상을 봉양한 것에 대하여 자식으로서의 긍지를 가진다. 특히 '내가 해드린 인조치마 입고 세상떴다', '비석, 평석이라도 포안하게 세워놨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조상에게 자손으로서의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후에 부모가 계신 선산에 자기도 문힘으로써 한 가족의 일원으로 귀속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긴다.

“내가 병수발을 다하고, 다른 사람은 못 혀. 찻, 쌀 하지면 지집아 노릇을 했어. 내가 수발 다 했지. 그러다가 인자 어머니 중독이 났버리고, 아버님 변소, 요강 에다 본 놈 버리고. 그러다 어쩌다 세월을 다 보내. 그러다 한 십년간 그렇게 누웠다가 세상을 떴지...(중략) ... 그때 명 것 입고 다니는 사람 많아. 광목 것이나. 거, 치매가 무겁지. 인조치마 하나 혀다 드렸더니, ‘아이고 야야, 찻, 개뽕고(가뽕고) 좋다’. 명 것 이런 것 특특한 것 입은게 칭칭 갱기고 무겁잖어?(연구자: 예 알아요) ‘아이고 야야, 세상이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그 놈 입고 세상떴어...(중략)...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다 새로 땅 짱아서 어머니 아버지들 한 티(한 곳) 다 다 모시고 다 혀어. 귀한 때 내가 다 삭군사서다, 비석, 평석이라도 하나 포안하게 혀서 세워뒀어. 거그 그 근방이여. 소양, 우리 선산에다가 혀서서 나도 죽으면 인자 가져갈 판어. 가다 싶것 어그서 더러 거깁 멩겨. ‘총무넌(양로원의 총무) 나 저그 저리 가요 인지(인제)’ (웃는다) 그러고 웃고. 그뻐하면 내 이렇게 살아도 다뻐 돈백만원이라도 줬을게...”(양노원 노인, 남자, 80세)

김원일의 「미망」에서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혹독한 시집살이, 좌익활동에 빠져 집안을 돌보지 않는 남편과 그의 죽음, 그리고 모진 고문과 굶주림의 공포 속에서도 어머니 홀로 두 자식을 보란듯이 키워냈던 지난 일들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한다. 살점이 날라간 손가락을 자식들에게 보이는 것은 부모의 고생과 자식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는 것임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하다. 노인에게 있어 부모는 생존했을 때는 산 조상으로, 부모 사망 후에는 영속적으로 모셔야 하는 운명적 공동체로 인식된다. 또한 유교적 관점에서 노인이 제사 의례 등 조상모시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손들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고 죽은 자식들을 위해 제사지내게 함으로써 자기의 흔적을 이승에 남기는 간접적인 영생법을 갈구하기 때문으로 본다(금장태, 1986; 유인희, 1991). 이는 노인이 그동안 맺어왔던 부모, 조상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했다는 것에 자부심과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노인은 살아오면서 맺었던 이웃 관계를 점검하고 이웃의 일원으로서 도리를 다함에 대한 보람을 찾는다. 아래 노인의 진술에서 ‘우리 동네서 굶어죽었던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자.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1960년대까지 있었던 이른바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로 이들은 살아오면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주변에서 허다하게 보고 살아왔다. 그러한 우리 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자기가 다 나서서 동네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데서 자부심을 갖고 삶의 보람을 갖는 것이 이 노인에게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공감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가 죽은 후에도 세상이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의 삶과 죽음을 값지게 인정해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공허한 욕망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어떻게 혀면 줌 없는 사얌을 좋게 뻐들어주냐, 지금 이 생각이 든당게. 내가 우리 동네서 굶어죽었던 사얌은 없어요. 다 내가 나서서...(중략)...나는 공부는 못 혀어도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내 것만 가지고 살라고 혀도 않고, 있는데로 살았을게. 인제 늙고 보닝게 그런 것이 생각이 나드라고...(중략)... 인자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혀서 넝한테 목을 안 먹고 이 세상을 찬성을 못 받을 뻐정 목을 안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그 사람들 나 죽으면 군인들이 나와서, 나도 인제 그 렷 판이여. 태극기, 큰 태극기 시체위에 딱 떨어주고, 인제 나도 그 렷 판이여. 군인들이 혀서 공중에 총쏘고 나

가고 그러지. 나도 그렇거여. 여그(병원)서 죽어도 그렇고 집에서 죽어도 그렇고 다 오게 되어 있어”(병원 노인, 남자, 73세)

이청준의 「눈길」은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죽음을 위한 준비로서 자기가 살았던 집을 고쳐고자 하는 노인의 소망과 그것을 이해 못 하는 자식 세대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노인은 비록 호의호식하고 살지 못했지만 남에게 굶은 소리 한 번 안 들을 만큼 이웃에게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왔다고 자평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후에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인정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하다. 다시말해 노인은 자기에게 죽음이 가까워움을 절감하면서 그동안 유지하여왔던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삶의 보람을 찾고, 사후에도 이승에 자기의 삶의 영속성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가족관계가 집안에서 이웃, 곧 사회로 확대된다. 즉 가족주의 가치관이 비단 가족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주의의 외부 사회에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것이다(최재석, 196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이 이웃에게 인간의 도리를 다했다는데 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앞서 논의한 부모-자녀 관계의 횡적 확대 형태라고 생각된다. 박아청(1990)은 자기(self or ego)란 주체적인 자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부모, 타인,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각되고 평가되는 상호적인 자기(mutual self)를 의미하는 측면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집단중심의 사회에서 개인의 생존은 집단에 소속될 때만이 보장되기 때문에 개인은 집단에 속하기 위하여 집단을 이루는데 필요한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조명옥, 1993). 본 연구의 노인들이 자손과의 관계, 가족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 이웃 관계, 조상과의 관계를 돌아봄으로써 삶의 보람을 가짐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관계 중심의 한국 문화를 잘 반영해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4가지 노인 회상의 본질적 주제인 「삶의 회한」, 「한의 식임」, 「힘의 확인」, 「삶의 보람」은 단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주제간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복합적,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노인 회상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양극단화하거나 단일 구조로 파악하는 방법은 회상의 본질을 깊이있게 파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간호 대상자인 노인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장해요소가 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회상은 노인의 행동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과 관련지어 나타나는 노인 특유의 삶의 존재방식의 하나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회상은 대상자의 지나온 삶의 경험, 역사에 관한 자서전적 진술의 속성이 강한 개념이므로, 대상자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이에 따라 한국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회상의 본질을 밝히고 그 본질의 해석학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접근 방법 중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구 대상자는 한국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노인을 가능한 포괄하기 위하여 재가 노인, 병원에 입원한 노인, 양로원 노인 등 총 10명이었으며, 1996년 1월부터 1997년 2월 까지 약 1년여 동안의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노인의 회상의 본질적 주제는 「삶의 회한」, 「한의 식임」, 「힘의 확인」, 그리고 「삶의 보람」으로 발견되었다. 각각의 주제들은 상호역동적이고 복합적으로 드러나며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다. 노인은 늙고 몸이 약해져감에 따라 시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인지하며, 굶이굶이 살아온 삶의 자락을 펼친다. 노인이 펼치는 삶의 한 자락은 삶의 회한이다. 삶의 회한은 고생과 희생으로 일관된 삶에 대한 허망함과 서러움,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하지 못한 도리에 대한 회한, 물질에 대한 회한, 그리고 배움에 대한 아쉬움 등 살아오는 동안 채우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원(怨)과 탄(嘆)을 말한다. 삶의 회한은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한의 식임으로 이어진다. 물질, 인연의 굴레, 인생의 채워지지 않은 한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떨쳐버리고 그 한을 가슴으로 삭이기도 한다. 한편 노인은 회상을 통해서 지난 날의 힘을 확인한다. 즉, 젊을 때의 몸의 기운(氣運)과 그리고 현재에도 기운이나 건강이 좋음을 과시함으로써 기력(氣力)을 확인한다. 자신감, 배짱, 지적 능력에 대한 패기(霸氣)와 총기(聰氣)의 확인, 부모로서 자식을 통제할 수 있었고, 물질을 마음 먹은 대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거나, 일 및 인간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존재 등 젊은 날의 기세(氣勢)를 확인한다. 힘의 확인은 신체의 기력을 기반으로 하며, 기력, 패기 및 총기, 기세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힘의 확인은 죽음이라는 현상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며 드러나며, 한국 사회 특유의 시대적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힘의 확인과 함께 삶의 보람이 발견된다. 다시 말해, 노인은 살아오는 동안 맺어진 인간 관

계 속에서 자기의 삶의 보람과 가치를 확인한다. 조상, 노인, 자식으로 이어지는 가족관계 속에서 노인은 조상과 자식에 대하여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는지를 점검하고 삶의 보람을 찾는다. 또한 이웃관계를 점검하고 이웃에게 도리를 다했다는 데서 삶의 보람을 갖는다. 이는 노인이 시간의 유한성과 존재의 위협을 느낌으로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영속성을 유지하려는 해석학적 의미가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한국 노인의 회상요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노인에게 회상요법을 적용하고 난 후의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셋째, 간호 실무에서 다양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 결과를 보완한 간호이론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장태 (1986). 조상숭배의 유교적 근거와 의미. 한국문화 인류학, 18, 73-78.
- 김경은 (1995). 노인 무력감의 현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삼성출판사편집 (1981). 한국 현대문학 전집, 23, 27, 50. 서울: 삼성출판사.
- 김원우 엮음 (1987). 어제 울린 총소리. 서울: 조선일보사.
- 구인환 엮음 (1994). 한국대표작 선집: 소설. 서울: 명문당.
- 문학교육연구회 엮음 (1991). 다시 읽어야 할 우리 소설. 서울: 사계절.
- 박상룡 (1988). 열명길.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박아청 (1990).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 서병숙 (1991).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 유인희 (1991).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창출판사.
- 이남호 (1995). 오늘의 한국소설. 서울: 민음사.
- 이상문학상 선고위원회 (1992).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서울: 문학사상사.
- 이인희 (1984). 사회과학 방법론에 있어서 이해의 문제: Schutz의 현상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청준 편집 (1983). 오늘의 작가총서. 서울: 민음사.
- 임두빈 (1982). F. Nietzsche에 있어 『힘에의 의지』로의 예술의 본질.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시자 (1989). 회상의 내용분석 및 간호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 (1994). 회고요법이 노인의 죽음불안과 자아통합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효과.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명옥 (1991). 전통사회의 노인을 위한 돌봄행위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이두 (1993). 한의 구조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최영희 (1994). 질적간호연구. 서울: 수문사.
- 최영희, 전산초 (1994). 노인간호학. 서울: 수문사.
- 최일남 (1996). 이상문학상 작품집. 서울: 문학사상사.
- 하양숙 (1990). 집단회상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4). '91, '92, '93, '94, 한국 문학작품선.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현암사편집 (1990). 이태준 전집1, 2. 서울: 현암사.
- 현암사편집 (1993). 80년대 대표소설. 서울: 현암사.
- Aristotle (1941). Rhetoric : Book 2. In R. McKean (ed.), The Basic Work of Aristotele, New York: Roman House.
- Beaton, S. R. (1991). Styles of Reminiscence and Ego Development of Older Woman Residing in Long Term Care Setting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2 (1), 53-63.
- Benner, P. (1985). Quality of Life :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on Explanation, Prediction and Understanding in Nursing Scienc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1-14.
- Burnside, I. (1993). Themes in Reminiscence Groups with Older Wome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5(2), 177-189.
- Carlson, C. M. (1984). Reminiscing : Toward Achieving Ego Integrity in Old Ag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2, 81-89.
- David, D. (1990). Reminiscence, Adaptation and Social Context in Old Ag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0(3),

- 175–188.
- Fry, R. S. (1991). Individual Differences in Reminiscence among Older Adults : Predictors of Frequency and Pleasantness Ratings of Reminiscence Activi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3(4), 311–326.
- Havighurst, R. J. and R. Glasser (1972). An Exploratory of Reminiscence. Journal of Gerontology, 27(2), 245–253.
- Haight, B. K. (1991). Reminiscing : The State of the Art as a Basis for Practi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3(1), 1–32.
- Hedgepeth, B. E & Hall, D. (1983). Effect of Positive Reminiscing Intervention on Affect, Expectancy, and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53, 867–870.
- Kovach, C. (1993). Content Analysis of Elderly Women. Research in Nursing Health, 14, 287–295.
- Lappe, J. M. (1987). Reminiscing : the Life Review Therapy. The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3(4), 12–16.
- Lidz, T. (1968). The Persons : his Development throught the Life style. New York : Basic.
- Munhall P. L. & Oiler, C. J. (1986). Nursing Research : A Qualitative Perspective. Norwalk : Appleton-Century-Crofts.
- Neugent, E. (1995). Reminiscence as a Nursing Intervention. Psychological Nursing, 33(11), 7–11.
- Poon, L. W. (1992). The Georgia Centenarian Stud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Special issue.
- Romaniuk, M. (1981). Reminiscence and the Second Half of Life. Experimental Aging Research, 7 (3), 315–336.
- Taft, L. B. & Nehrke, M. F. (1990). Reminiscence, Life Review, and Ego Integrity in Nursing Home Resid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0(3), 189–196.
- Stevens-Ratchford, R. G. (1992). The Effect of Life Review Reminiscence Activities on Depression and Self Esteem in Older Adults.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7 (5), 413–420.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Press : Canada.
- Wallace, J. B. (1988). Reconsidering the Life Review : The SocialConstruction of Talk about the Past. The Gerontologist, 32(1), 120–125.
- Webster, J. D. (199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Reminiscence Functions Scale. Journal of Gerontological Scences, 48(5), 256–262.
- Youssef, F. A. (1990). The Impact of Group Reminiscence Counseling on a Depressed Elderly Population. Nurse Practitioner, 15(4), 32–38.

– Abstract –

Key concept : Korean Elders, Reminiscence, Nature

The Nature of Korean Elder's Reminiscence : A Phenomenological Approach

*Lee, Eun Jeong**

The phrases such as elders' powerless soliloquy or stammering and their positions unadjusted to the real world are, so far, one of negative views on elder's reminiscences.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elders can get psychological consolation from the getting themselves absorbed in their past.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s, however, that elders' reminiscence are their own mode of the existence. This dissertation is studied through Van Manen'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ature of Korean elders' reminiscences by both observing and describing the reminiscing content in everyday life of elders. The research participants consist of the ten elders who are community elders, hospitalized elders and nursing

* Department of Nursing, Seonam University

home residents. The period of the research is about a year from Jan., 1996 to Feb., 1997.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natures of elders' reminiscences are the regretting on their life, mitigating the regrets, the confirmation of the powers and the confirmation of their life's mark. The regretting on their life is the starting point of elders's reminiscences. Elders have tried to examine their life through reflection on their life that they did not live good life as son and daughter for parents and as parents for children and that they have foolishly lived, on dream that they did not come true, on their learning that they did not unsatisfied. But elders mitigate the regrets. They have felt their limitations of power in the conflict of human relation, the economic matter and the difficult predicament, and have finally accepted their life as it is by conquering from their tenacity. It is dynamically found that both the regretting on their life and mitigating of the regretion. And they pursuit the powers. It means the pursuit of the vital powers,

the vigorous powers and the competency. Elders have pursued their vitality, vigor and competency through their reminiscences and have wanted to be recognized by others as a powerful being. These have dynamic and compounded aspects. The confirmation of their life's mark refer to through their own situation of health, condition, children, neighbourhood and doing their duty as a human. Elders have confirmed the present value of their being through the reflecting the present, past self, other men around themselves, children, neighborhood and the doing their human duty as a good men.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offer new view on the elders' reminiscences that we have to understand them as a process as what they are, escaping from the simple logic that elders' reminiscence have a positive or a negative effects. Also, this study which have examined the natures of Korean elders' reminiscences can cast a new light on elders' nursing proper for Korean culture.